

교육실습학기제 준비를 위한 예비 음악교사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for the Preparation of the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김영미* · 박영주**

Young Mee Kim · Young Joo Park

초록 본 연구는 시범운영 중인 교육실습학기제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행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 음악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음악교사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SPSS 23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교차 분석, t 검정을 통해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는 현행 4주의 교육실습 기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7~8주로 교육실습 기간을 변경하고 5학점으로 실습 학점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운영, 학교 행정 체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으며, 교육실습을 위한 학교 혹은 학과의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 교사들의 준비와 전문성 발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향후 교육 실습 개편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예비 교사, 교사교육, 교육실습, 교육실습학기제, 교사전문성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e-service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the education practice system for the preparation of the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which is being piloted. A survey was conducted on 118 pre-service music teachers enrolled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analysis, and t-test with SPSS 23. The study found that pre-service teachers preferred 7 to 8 weeks of education practice and suggested that it should be increased to 5 credits. In addition, pre-service teachers want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class management and the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They also had a positive view of the support provided by the schools or departments they were involved with during their education practice. The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 into the impact of the education practice system on the prepar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future teachers. The findings can be used to make decisions about the implementation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he system.

Key words: pre-service teacher, teacher education, education practice,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 First author, E-mail: ykim0007@kmu.ac.kr

Assistant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j9097@gmail.com

Assistant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7 Gyeo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I . Introduction

한 국가의 교육의 질(quality)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는 것만큼 교육은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질’에 대해 연구한 해리스(D. N. Harris)는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이 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준 높은 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Harris & Sass, 2008). 그는 또한, 교사의 질 향상이 미국의 학교 교육 개선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생 중심 교육에서도 학습에 대한 열쇠를 주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 교사 교육에서도 수준 높은 음악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질 있는 음악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변화와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교수역량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고자 ‘교육실습학기제’ 시행을 공표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2022b). 교육실습학기제를 점차 확대하여 교사양성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 교사들의 현 교육실습에 대해 인식, 그리고 교육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실습학기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있는 정책 실천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음악교사의 현행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과 ‘교육실습학기제 시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교육실습 개편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인식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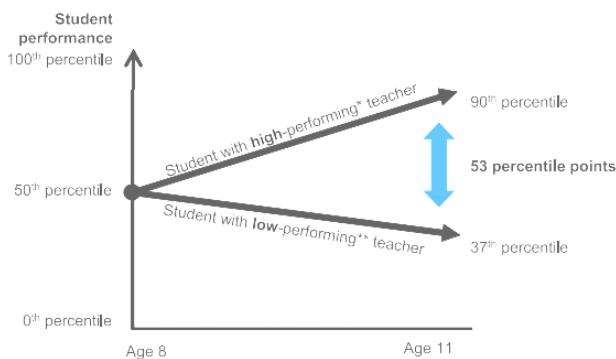
II . Literature Review

1. 교사교육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수준은 교사교육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교사 교육을 받을 때 학생에 대한 태도, 이해, 기술 및 행동 등 교직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신체와 정신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교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고, 교사선발에서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肯지(McKinsey)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최상의 학교 시스템과 학업 성취를 나타낸 학교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Barber & Mourshed, 2007). 특히 보고서에서는 교사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관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 예로, 미국 테네시주(State of Tennessee)의 한 학교를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여주는 교사와 함께 학습한 학생들은 처음 시작보다 37% 정도 상향한 학습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수행을 보여주는 교사와 함께 학습한 학생들은 16% 하향한 학습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다[Figure 1]. 이 결과는 교사의 역량과 학생의 학습 성취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The effect of teacher quality (Barber & Mourshed, 2007)

2. 교육실습

1) 현행 교육실습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습한 교과 교육론과 교직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다(Kim, 2012; 2014). 즉 교육실습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 학습한 교육학 이론과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며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사로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Kim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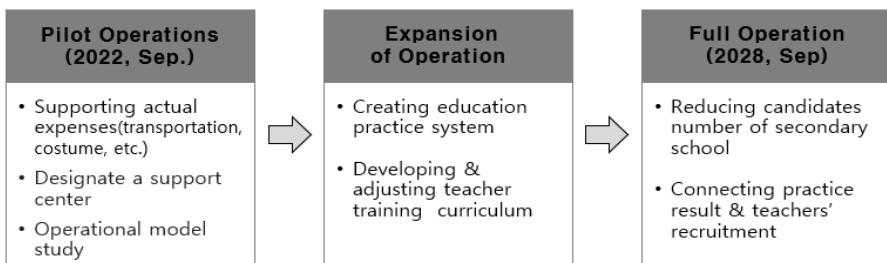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중등 예비 교사양성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학생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나 일반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교육실습은 교육봉사(졸업까지 60시간 이상을 총족)와 함께 중등 정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므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실습의 정식 명칭은 '학교현장실습'이며, 4주간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사로서 자질을 스스로 확인하고 길러가는 필수과정이다. 학교현장실습은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학교 현장 업무 교육을 받는다. 둘째, 현직 교사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실습지를 작성한다. 셋째, 실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경험을 한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행사, 조례와 종례, 방과 후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실습을 진행한 후 예비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사로서 역할 인식이 높아지며, 교과교육과 교직과목의 이론적 역량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역량을 접목하게 된다. 즉, 교육실습은 이론적 준비, 실천적 교수역량, 교직과정에 대한 준비 등 3가지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Back & Ham, 2007). 따라서 교육실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실습 이전 이루어지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예비 교사들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시켜야 한다.

2) 교육실습학기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에 한 달을 정하여 4주간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실습체제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공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역량을 함양하는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하여 한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Figure 2].



[Figure 2] Process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예비교원은 대학 교육과정 한 학기(15주 동안) 동안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 지도 ·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현장(학교 · 교실 ·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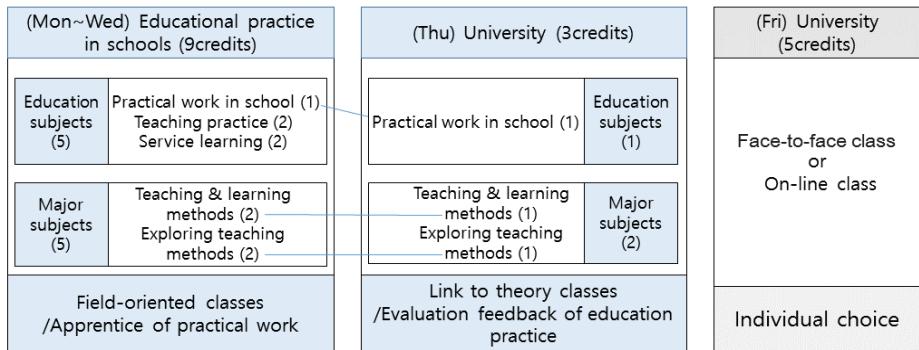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교직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교직에 대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실습학기제를 시행하며 예비 교사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하는 기회와 역할을 제공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양성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실습이 잘 이루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2022b). 또한 학교 현장 교육실습 학기제가 공표된 후 시범운영 진행 상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background and major progress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2022b)

Day	Contents
2021.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of the draft for teacher training system development plan • Operating regulations for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202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of the confirmed plan for teacher training system development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2021. 11. ~ 2022.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 confirmation about participation demands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national/public & private universities)
2022. 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ot operation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Education colleges of national/public & private universities) <p>*1st semes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a University *2nd semes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p>
202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ring the results of pilot operation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2022, 1st semester)
202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ring the results of pilot operation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2022, 2nd semester) <p>*Sharing the process & content of the standard operating manual & curriculum for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operating manual & curriculum is under development)</p>

교육부는 일주일에 3~4일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1~2일은 대학에서 실습 연계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2일간 대학에 돌아가 교직과목 즉 교직 실무, 교수 학습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 실습과 연계된 수업을 받게 된다[Figure 3].



[Figure 3] Operating model of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현재 교사양성기관, 중 · 고등학교 실습학교, 실습에 참여하는 예비 교사 등 교육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자율 의지로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비 교사들은 수업 경영, 학생 지도, 기초학력, 원격수업, 행정업무 지원 등 종합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며 4주간 교육실습보다 확대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실습학교에는 위탁 교육비가 지급되고 실습생에게는 교통비와 의복비 등을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대학들은 실습학기제 표준 교육과정 · 운영 매뉴얼이 없이 교사양성과정이 있는 대학 또는 사범대학, 협력 학교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였고, 평균 10인 이하 예비 교사들이 실습학기제 참여하였다. 그리고 현재 여러 차례 교육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와 연구 발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수정하며 현장 적용을 연구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2022b).

III. Method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예비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118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18명의 예비 음악교사 중 사범대학(이하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음악교사는 68.6%(N=81)이며, 교육대학원(이하 교대원)에 재학 중인 예비 음악교사는 31.4%(N=37)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 음악교사의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18)

Contents		N (%)		
Age	20 or less	41 (34.7)		
	21~25	53 (44.9)		
	26~30	18 (15.3)		
	31 or older	6 (5.1)		
Gender	Female	96 (81.4)		
	Male	22 (18.6)		
School level	College of education	1 st grade	31	81 (68.6)
		2 nd grade	28	
		3 rd grade	21	
		4 th grade	1	
	Graduate school	1 st semester	9	37 (31.4)
		2 nd semester	4	
		3 rd semester	9	
		4 th semester	13	
		5 th semester	2	

2.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A 대학과 B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결과 설문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교육실습 희망 학교, 교육실습 정책에 대한 인식, 교육실습을 위한 각 소속 대학 및 학과의 지원, 교육실습 시 희망하는 활동 내용의 총 4개의 하위 영역과 총 25개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음악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00$ 의 높은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량을 실시하였고, 사범대와 교대원 간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교차 분석과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 분석 도구로 SPSS 23을 활용하였다.

IV. Results

1. 교육실습 학교에 대한 인식

예비 음악교사의 교육실습 희망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예비 음악교사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더 선호하였고(N=63, 53.4%), 학생 구성원의 성별은 남녀공학 학교로 나타났다(N=62, 52.5%). 또한 예비 음악교사는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는 것을 희망하였고(N=79, 66.9%), 학교의 소재지는 시·군 단위의 학교에서(N=68, 57.6%) 교육실습 경험을 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기타 학교 특징에서는 교육청 협력 학교의 유무보다 예비 음악교사의 모교 혹은 연고지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N=57, 48.3%). 사범대 학생들과 교대원 학생들 간의 교육실습 희망 학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교 급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교 급별 성별($\chi^2=9.347$, $p<.01$), 학교 유형($\chi^2=4.051$, $p<.05$), 소재지($\chi^2=26.839$, $p<.001$), 기타 학교 특징($\chi^2=18.819$,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급별 성별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은 남자학교 선호 비율이 7.4%(N=6)이지만, 교대원 학생들은 24.3%(N=9)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의 성별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은 60.5%(N=49)로 나타났지만, 교대원 학생들은 35.1%(N=13)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은 사범대 학생들과 교대원 학생들이 모두 국·공립학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범대 학생들은 72.8%(N=59)가 국·공립학교를 희망하였고, 그에 비해 교대원 학생들은 54.1%(N=20)가 국·공립학교를 희망한다고 나타났다.

교육실습 희망 학교 소재지에 대한 조사에서 사범대 학생들의 71.6%(N=58)가 시·군 단위의 학교를 선호하는 반면, 교대원 학생들의 64.9%(N=24)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위치한 학교를 교육실습학교로 더 선호하였다. 기타 학교 특징에서 64.9%(N=24)의 교대원 학생들은 교육청 협력 학교로 희망하였지만, 사범대 학생들은 협력 학교의 유무보다 연고지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61.7%(N=50)로 나타났다.

<Table 3> Preference for schools desired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School level	Middle school	34(42.0)	21(56.8)	55(46.6)	2.230	.135
	High school	47(58.0)	16(43.2)	63(53.4)		

<Table 3> Continued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Gender	All-boys school	6(7.4)	9(24.3)	15(12.7)	9.347	.009**
	All-girls school	26(32.1)	15(40.5)	41(34.7)		
	School	49(60.5)	13(35.1)	62(52.5)		
Desired school	Public school	59(72.8)	20(54.1)	79(66.9)	4.051	.044*
	Private school	22(27.2)	17(45.9)	39(33.1)		
Regions	Special/ metropolitan cities	14(17.3)	24(64.9)	38(32.2)	26.839	.000***
	Medium/ small sized cities	58(71.6)	10(27.0)	68(57.6)		
	Suburban/ island towns	9(11.1)	3(8.1)	12(10.2)		
Other School features	A cooperative school	26(32.1)	24(64.9)	50(42.4)	18.819	.000***
	Not a cooperative school	5(6.2)	6(16.2)	11(9.3)		
	Alma mater	50(61.7)	7(18.9)	57(48.3)		
Total		81(100.0)	37(100.0)	118(100.0)		

*p<.05, **p<.01, ***p<.001

2. 교육실습 정책에 대한 인식

1) 교육실습 기간

예비 음악교사는 현행 교육실습 기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N=80, 67.8%). 사범대 학생들과 교대원 학생들의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8.341$, p<.001). 사범대의 80.2%(N=65)와 교대원 학생들의 40.5%(N=15)가 현행 교육실습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Table 4>.

<Table 4> Perception of the current education practice period

Period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Enough	16(19.8)	22(59.5)	38(32.2)	18.341	.000***
Not enough	65(80.2)	15(40.5)	80(67.8)		

***p<.001

현행 교육실습 기간이 교사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간이라는 질문

에 대해 <Table 5>와 같이 86.5%(N=102)의 예비 음악교사는 적절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t 검정 분석 결과, 사범대 학생들의 평균이 교대원 학생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t=2.538$, $p<.05$).

<Table 5> Perception of the education practice period to understand major tasks

Level	Frequency (%)	M	SD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	p
				M	SD	M	SD		
Strongly negative	71(60.2)	1.67	1.02	1.83	1.16	1.32	.47	2.538	.012*
Negative	31(26.3)								
Positive	0(0)								
Strongly positive	16(13.6)								
Total	118(100.0)								

* $p<.05$

예비 음악교사에게 적절한 교육실습 기간을 설문한 결과 53.4%(N=63) 학생들은 7주~8주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chi^2=35.442$, $p<.001$). 7~8주의 응답에서 사범대 학생들은 58.0%(N=47)로 나타났고, 교대원 학생들은 43.2%(N=16)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Perception for the education practice period

Periods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5~6 weeks	17(21.0)	7(18.9)	24(20.3)	35.442	.000***
7~8 weeks	47(58.0)	16(43.2)	63(53.4)		
9~12 weeks	1(1.2)	7(18.9)	8(6.8)		
13~16 weeks	0(0)	7(18.9)	7(5.9)		
Other opinions	16(19.8)	0(0)	16(13.6)		
Total	81(100.0)	37(100.0)	118(100.0)		

*** $p<.001$

2) 교육실습학기제 학점

교육실습학기제 시행에 있어 실습 학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예비 음악교사의 55.9%

(N=66)는 5학점 이상의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Expected credits for practice; implementing the education practice semester system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2 credits	1(1.2)	3(8.1)	4(3.4)	7.522	.057
3 credits	18(22.2)	3(8.1)	21(17.8)		
4 credits	20(24.7)	7(18.9)	27(22.9)		
More than 5 credits	42(51.9)	24(64.9)	66(55.9)		
Total	81(100.0)	37(100.0)	118(100.0)		

3. 교육실습 지원에 대한 인식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1)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실습을 위한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비 음악 교사의 66.1%(N=78)가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M=2.56, SD=1.07).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균에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t=23.105$, $p<.001$). 즉, 사범대 학생들이 교대원 학생들 보다 참여자의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에 더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Table 8>.

<Table 8> Perception of affiliated school's curriculum for conduction the education practice

Level	Frequency (%)	M	SD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	p
				M	SD	M	SD		
Strongly negative	32(27.1)	2.56	1.07	3.21	.49	1.14	.35	23.105	.000***
Negative	8(6.8)								
Positive	58(49.2)								
Strongly positive	20(16.9)								

*** $p<.001$

(2) 대학의 교직과목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67% (N=79)에서 예비 음악교사는 교직과목이 교육실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M=2.56$, $SD=1.07$). 또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교직과목에 대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105$, $p<.001$). 즉, 사범대 학생들이 교대원 학생들보다 교직과목에 대한 이해 가 교육실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높게 나타내었다<Table 9>.

<Table 9> Perception of teaching subjects for conducting the education practice

Level	Frequency (%)	M	SD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	p
				M	SD	M	SD		
Strongly negative	34(28.8)	2.75	1.23	3.52	.55	1.08	.28	25.471	.000***
Negative	5(4.2)								
Positive	35(29.7)								
Strongly positive	44(37.3)								

*** $p<.001$

(3) 학과의 개설과목

각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예비 음악교사의 66.9%(N=79)는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 교육실습 기간 중 교실 수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M=2.69$, $SD=1.16$). 또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사범대 학생들이 교대원 학생들보다 교실 수업에 있어 학과 개설과목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314$, $p<.001$)<Table 10>.

<Table 10> Perception of subjects opened by schools for the education practice

Level	Frequency (%)	M	SD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	p
				M	SD	M	SD		
Strongly negative	32(27.1)	2.69	1.16	3.40	.54	1.14	.35	23.314	.000***
Negative	7(5.9)								
Positive	45(38.1)								
Strongly positive	34(28.8)								

*** $p<.001$

2) 대학의 행정 지원에 대한 인식

소속 대학의 교육실습 행정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예비 음악교사의 73.6%(N=63.6)는 교육실습 과목 이수에 있어서 각 대학의 행정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M=2.58$, $SD=.98$).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7.615$, $p<.001$). 즉, 사범대 학생들이 교대원 학생들 보다 대학의 행정 지원에 더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Table 11>.

<Table 11>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education practice

Level	Frequency (%)	M	SD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	p
				M	SD	M	SD		
Strongly negative	24(20.3)	2.58	.98	3.15	.53	1.35	.48	17.615	.000***
Negative	19(16.1)								
Positive	57(48.3)								
Strongly positive	18(15.3)								

*** $p<.001$

3) 학과의 지원에 대한 인식

(1) 전공 관련 지원

교육실습을 위해 학과로부터 가장 도움받고 싶은 전공 관련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예비 교사의 58.5%(N=69)는 교재연구 및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 대해 가장 도움을 희망하였으며, 다음은 수업 매체 제작 및 활용이 33.1%(N=39)로 나타났다.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2>.

<Table 12> Contents that you want to receive support from your department regarding major

Contents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Knowledge of major	7(8.6)	3(8.1)	10(8.5)	.314	.855
Creating and utilizing materials for classes	28(34.6)	11(29.7)	39(33.1)		
Teaching and learning plans	46(56.8)	23(62.2)	69(58.5)		
Total	81(100.0)	37(100.0)	118(100.0)		

(2) 전공 관련 외 지원

전공 관련 외 지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35.6%(N=42)의 예비 음악교사는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을 학과로부터 지원받고 싶어 하였으며, 27.1%(N=32)의 예비 음악교사는 수업 분위기 조성 방법을 지원받고 싶어 하였다.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효율적인 소통 능력 방법, 자신감, 효과적인 시간 계획, 판서 능력을 응답하였다.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교차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3>.

<Table 13> Contents that you want to receive support from your department regarding other subjects

Contents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Time planning	6(7.4)	1(2.7)	7(5.9)	9.195	.102
Confidence	6(97.4)	3(8.1)	9(7.6)		
Creating a class atmosphere	25(30.9)	7(18.9)	32(27.1)		
The way to write on the blackboard	0(0)	3(8.1)	3(2.5)		
Ability to communicate	16(19.8)	9(24.3)	25(21.2)		
The way to use technology	28(34.6)	14(37.8)	42(35.6)		
Total	81(100.0)	37(100.0)	118(100.0)		

4. 교육실습 중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 음악 교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 생활지도, 학생 개별상담지도, 학생회 · 동아리 · 학급회의 등 학생 특별활동지도, 학급 종회 및 종례, 학급행사, 담당 교사와 함께 학교 행정, 수행 및 형성 평가 절차, 현직교사 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사범대와 교대원 간 교육실습 기간 중 참여 희망 활동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생 생활지도($\chi^2=8.341$, $p<.01$), 형성평가 절차 참여($\chi^2=10.1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 외 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사범대 학생들의 92.6%(N=75)와 교대원 학생들의 73.0%(N=27)가 참여를 희망하였고, 사범대 학생들의 7.4%(N=6)와 교대원 학생들의 27.0%(N=10)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다. 즉, 사범대 학생들보다 교대원 학생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형성평가 절차에서도 사범대 학생들의 12.3%(N=10), 교대원 학생들의 37.8%(N=14)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범대 학생들보다 교대원 학생들이 형성평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Activities expected to participate during education practice

Contents		College of education N(%)	Graduate school N(%)	Total	χ^2	p
Student life guidance	Participation	75(92.6)	27(73.0)	102(86.4)	8.341	.004**
	Non-participation	6(7.4)	10(27.0)	16(13.6)		
Individual student counseling guidance	Participation	46(56.8)	24(64.9)	70(59.3)	.686	.407
	Non-participation	35(43.2)	13(35.1)	48(40.7)		
Student special activity guidance	Participation	64(79.0)	33(89.2)	97(82.2)	1.798	.180
	Non-participation	17(21.0)	4(10.8)	21(17.8)		
Class meeting for starting and closing	Participation	68(84.0)	30(81.1)	98(83.1)	.149	.700
	Non-participation	13(16.0)	7(18.9)	20(16.9)		
Events for class	Participation	70(86.4)	32(86.5)	102(86.4)	.000	.992
	Non-participation	11(13.6)	5(13.5)	16(13.6)		
School administration with the teacher in charge	Participation	46(56.8)	27(73.0)	73(61.9)	2.819	.093
	Non-participation	35(43.2)	10(27.0)	45(38.1)		
Procedure for performance assessment	Participation	70(86.4)	27(73.0)	97(82.2)	3.139	.076
	Non-participation	11(13.6)	10(27.0)	21(17.8)		
Procedure for formative evaluation	Participation	71(87.7)	23(62.2)	94(79.7)	10.187	.001***
	Non-participation	10(12.3)	14(37.8)	24(20.3)		
In meeting for doctors	Participation	45(55.6)	24(64.9)	69(58.5)	.906	.341
	Non-participation	36(44.4)	13(35.1)	49(41.5)		
Total		81(100.0)	37(100.0)	118(100.0)		

p<.01, *p<.001

V.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는 학교 현장 수업에서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육실습학기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 교육실습 전반에 대한 예비 음악교사의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 희망하는 학교급에 대한 인식, 교육부의 교육실습 정책에 대한 인식, 소속된 학과의 전공 및 지원에 대한 인식, 교육실습 현장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에 대한 선호도에서 교육실습 대상 학교 학생의 구성 성비,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및 기타 학교 특징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사범대 학생들은 국공립학교, 시·군 단위의 학교, 모교인 연고지 학교를 더 선호하였지만, 교대원 학생들은 국공립학교, 특별시·광역시 소재지의 학교, 교육청과 협력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이 교육 실습 학교 소재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 이유가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이 현재 소속된 학교 위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읍·면 단위의 학교 등에 대해 예비 교사들의 낮은 선호도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인지 또는 교육 실습 과정에서 적응과 지도에 대한 문제인지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이러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교육실습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비 음악교사는 현행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 음악교사는 교육실습 기간이 교사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교육실습 기간을 7~8주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점을 기준의 학점 보다 상향된 5학점 이상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교육실습학기제는 한 학기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이는 예비 음악교사의 인식 연구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사범대 학생의 경우 13주에서 16주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과 교대원 학생의 경우, 5~6주 이하, 9주~12주, 13주~16주 모두 18.9%에 대한 의견만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 학기제(15주)’ 기한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교육 실습과 동시에 대학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시범운영 형태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실습학기제 정책을 결정할 시 실습 당사자인 예비 교사의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실습 후 인식 변화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실습 준비에 있어서 예비 음악교사는 대학과 학과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 음악교사는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직과정과 학과 개설과목이 교육실습과 교실 수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대원 학생에 비해 사범대 학생들이 대학의 행정적 지원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므로 향후 교대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예비 음악교사는 교육실습 중 수업 외 다양한 활동 즉, 학생 생활지도, 학생 개별 상담지도, 학생 특별활동지도, 학급 종회 및 종례, 학급행사, 행정, 평가 등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실습학기제가 시행되면 시범운영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양한 활동들

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예비 음악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도교사에 따라 예비 음악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위 활동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교육실습학기제 기간 동안 보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을 이미 경험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예비 음악교사와 현장 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의 인식과 현장 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실습학기제에 의미 있는 결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중 2023년 5월 교육실습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실습 전후의 인식 변화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면을 확장하고, 축소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비 음악교사 교육 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교육실습 인식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실제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징 및 배움의 정도는 다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교육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정한 내용에서 사범대와 교대원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지도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rber, M., & Mourshed, M. (2007). *How the world's best performing school system come out on top*. McKinsey & Co.
- Back, S., & Ham, E. H. (2007).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um on educational value i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4), 1-29.
- Harris, D. N., & Sass, T. R. (2008). Teacher training, teacher quality and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Center for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in Education Research*, 3, 1-56.
- Kim, S., Kim, J., & Park, Y. J. (2020). A comparative study on music teacher training programs of Ontario, Quebec, British Columbia in Canad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69-90.
- Kim, Y. M. (2012). A survey study on the effective music activities in junior and senior

- high school music education: with the report of student-teaching as a basi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5, 35-56.
- _____ (2014).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 by strengthening art-music listening skill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2(2), 1-18.
- _____ (2020). A study on the training system of music teachers in Eng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51-77.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a). *2022-1 pilot operation performance sharing conference data book*.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 _____ (2022b). *2022-2 pilot operation performance sharing conference data book. CRM 2022-119*.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